2026.03.20

HK market insight

희박해지는 조기종전 가능성, 증가하는 경제 부담

흥국투자전략 **이영원** / (02)739-5848 / youngwon@heungkuksec.co.kr

- 이란 천연가스 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 이란의 카타르 천연가스 시설에 대한 보복공습
- 자제해오던 에너지 생산시설에 대한 직접공격, 에너지 시장에 충격 확산
-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부담 급증할 수 있어

마지노선을 넘어서고 있는 이란 전쟁

이란 전쟁의 상황이 점차 악화되는 모습이다. 연이은 폭격과 공습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대상은 군사시설과 전략자산 등에 집중되어왔다. 중동지역의 최대 인프라인 석유 등 에너지 생산시설은 가급적 공격대상에서 제외하며 자칫 이번 전쟁이 세계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해왔다.

하지만 지난 14일 이란의 최대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이루어졌고, 18일에는 이란의 최대 가스 매장 지역인 사우스 파르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이 단행되었다. 이란도 카타르의 가스 수출거점인 라스라판을 공습해 시설의 1/5 가량을 파괴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란과 카타르 사이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가스매장지역의 양국가 소유 시설에 공격이 단행된 것이다. 이 지역은 전세계 천연가스의 20% 이상을 공급하는 핵심 천연가스 생산지역이며 카타르는 시설 피해 복구에 3-5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며 한국,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 등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 최대 5년간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천연가스 뿐 아니라 중동지역 석유의 생산과 운송, 전 과정이 위축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유조선을 포함한 상선에 대한 드론, 소형선박, 미사일 등을 사용한 공격이 20여회에 달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파이프 라인에 대한 공격도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가스전 등 에너지 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이 없을 것이라는 공언과 함께 WTI 유가의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브렌트, 두바이 등 현지 상황을 더 민감하게 반영하는 유종간 가격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직접적인 공습에 의한 시설 파괴 이외에도 장기간 생산과 유통이 적체될 경우 생산시설의 훼손에 따른 피해도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기종전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피로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에너지 위기 가능성 고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스전 등 생산시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에너지 위기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 중동지역으로부터 석유와 가스 등을 공급받는 국가의 경우 비축 물량의 소진 이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돌입하고 있다.

18일 공방 이후 카타르는 라스 라판의 LNG 생산설비 14기 중 2기, 가스 액화시설 2기 중 1기가 손상되어 전체 설비의 17%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장기공급계약에 대해 최대 5년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카타르가 세계 3위의 가스수출국인 점을 감안하면 세계 천연가스 수급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우라니라의 경우도 카타르로부터 전체 천연가스의 15%를 수입하고 있다. 그나마 2015년 최고 38%에 달했던 카타르 비중이 호주, 미국, 캐나다 등으로 분산되면서 직접적인 충격이 크기는 완화된 상황이다. 하지만 가스의 경우 석유와 다른 물리적 특징으로 비축/보관에 어려움이 크며 이로 인해 한국의 비축 물량이 석유의 200여일분에 비해 훨씬 작은 9일치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급조절의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석유의 경우도 비축유 수준이 가스에 비해 높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되고 전쟁 이후에도 석유 생산과 수출 물량의 감소가 초래되는 생산시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높은 중동 석유 의존도를 감안할 때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일본에 비해 중동 석유 의존도는 낮은 상황이나(한국 60%, 일본 92%) 여전히 절반 이상이 이번 전쟁의 영향권에 놓인 지역에서 공급되고 있다.

전쟁의 상황, 장기화 혹은 전쟁이후 피해복구의 난이도에 따라 석유제품의 소매가격 상승 뿐 아니라 나프타 등 핵심 중간원료의 수급차질, 비축유 소진 이후 원유 수급 차질 등 보다 근본적인 위기로의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전쟁과 봉쇄가 해소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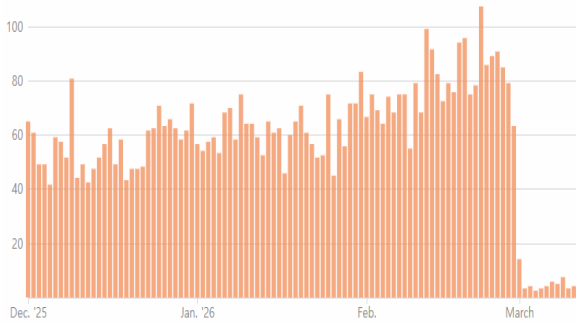
그림 1 **이란 하르그 섬**

자료: Bloomberg,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피격당한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과 이란의 보복공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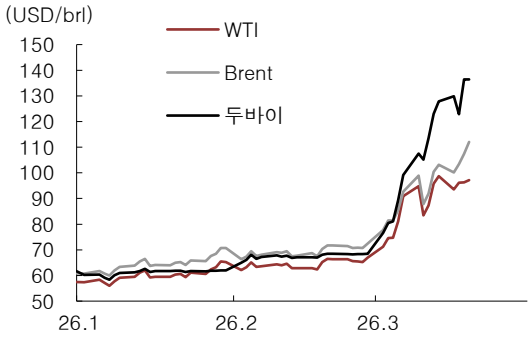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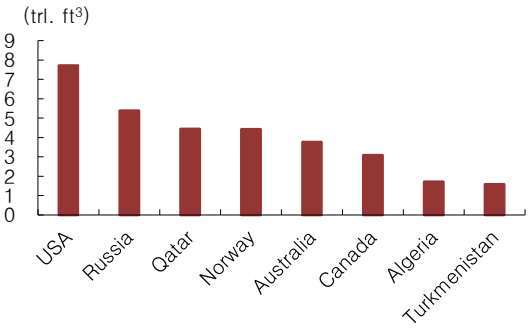
자료: CNN,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WTI, Brent, Dubai 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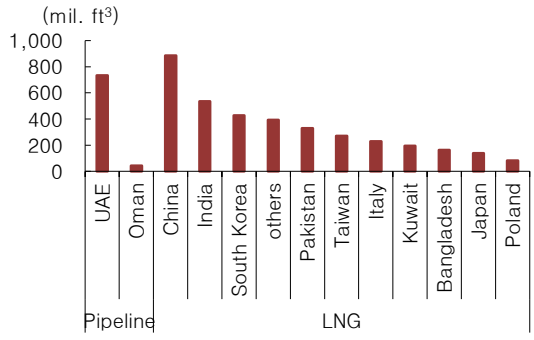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전세계 천연가스 수출국 순위, 2024년**



자료: EIA,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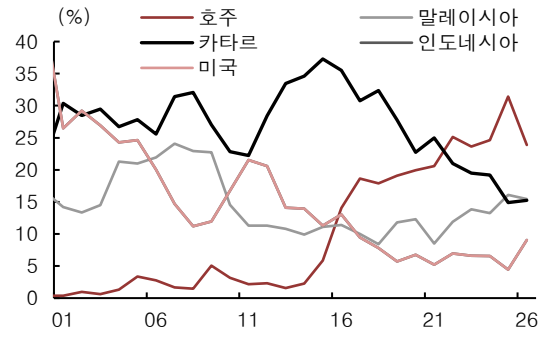
그림 6 **카타르 천연가스 국가별 수출**



자료: EIA,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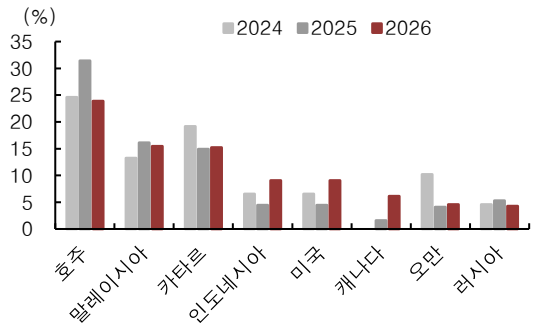
Heungkuk 흥국증권

그림 7 한국 LNG수입 국가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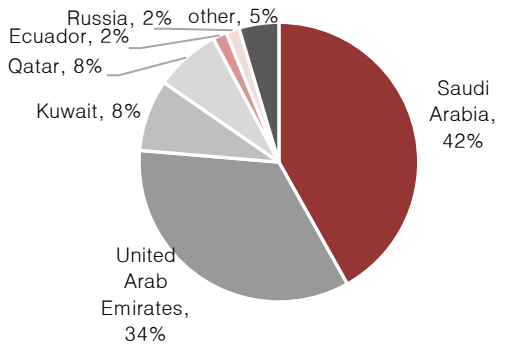
자료: KITA,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한국 LNG수입 국가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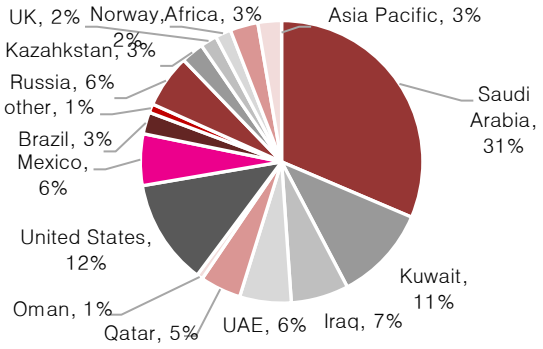
자료: KITA,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일본 국가별 석유수입 비중, 2022



자료: EIA,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한국 국가별 석유수입 비중 2021



자료: EIA,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보고서 제공시점 현재 상기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동 보고서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는 상기 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제공시점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 상기 종목의 유가증권 발행에 주간사로 참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는 당사 고객들의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신뢰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보고서가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 대여, 전송, 변형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흥국씨앗체

본 보고서에 사용된 흥국씨앗체는 흥국의 기업철학 모티브를 반영한 글씨체로서,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독일 '2015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커뮤니케이션 분야 브랜드 아이덴티티 부문 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친근하고 희망적인 느낌의 흥국씨앗체는 고객존중과 으뜸을 지향하는 흥국의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킵니다.

Heungkuk
흥국증권

□ 주소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14층)
(리서치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6층)
□ 전화번호 영업부 대표 02)6742-3635
□ 팩스 영업부 대표 02)739-6286